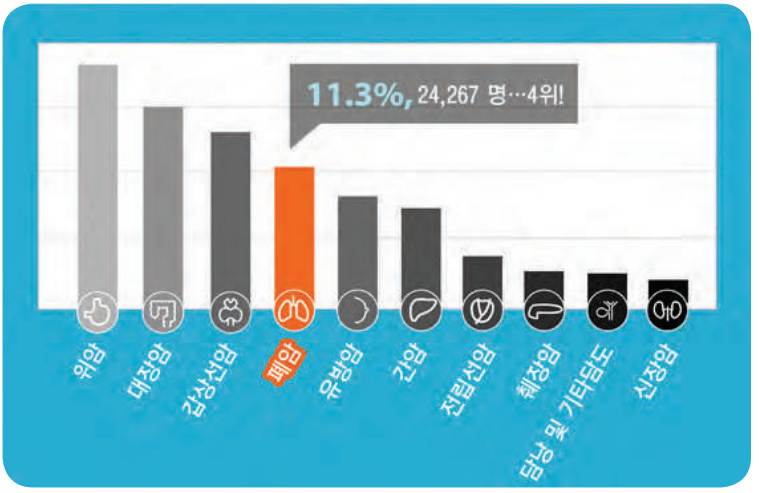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폐암

우리나라의 암 발생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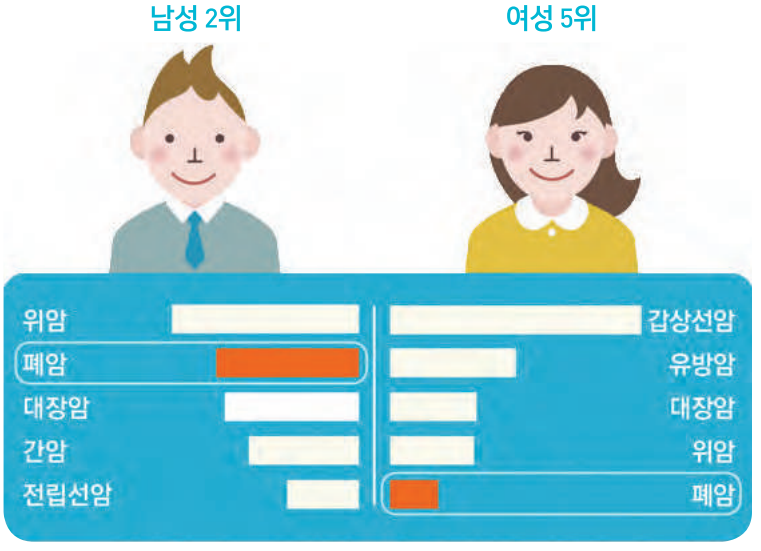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로 3명중 1명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는 5명 가운데 2명, 여자는 3명 가운데 1명에서 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폐암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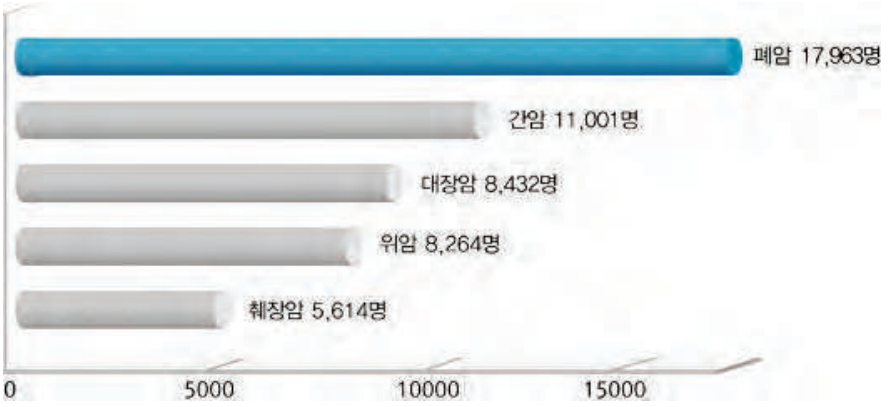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폐암 환자 수는 총 2만 4,267명이다. 같은 해 전체 신규 암 환자 21만 4,701명 중 11.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남성 VS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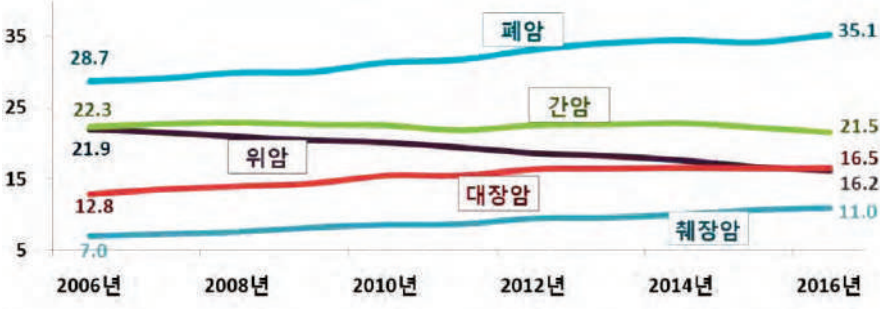


2016년 암종별 사망자수 남녀전체



악성신생물(암) 사망률 추이, 2006-2016

(인구 10만 명당 명)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 사고 순이었다.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2006년, 134명→ 2016년, 153명) 폐암 사망률(2006년, 28.7명→ 2016년, 35.1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암 사망률은 폐암(35.1명), 간암(21.5명), 대장암(16.5명), 위암(16.2명), 췌장암 (11.0명) 순으로 높았다.

- 남자는 폐암(52.2명), 간암(31.5명), 위암(20.8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다.
- 여자는 폐암(18.1명), 대장암(14.6명), 간암(11.6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다.
- 30대는 위암,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폐암 극복을 이끄는 “다학제 진료”

원광대병원 폐암 드림팀

최적의 폐암치료를 위한 전문의 협진

한국인 암 사망률 1위 ‘폐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폐암의 사망 위험이 큰 이유는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도 감기와 비슷한 증상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 시에 이미 상당히 진행 된 상태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학적인 유형 및 분자병리가 다양하고, 환자마다 병기나 상태도 다르다. 즉 폐암은 진단과 치료가 까다로워 여러 진료과가 협진해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폐암이 다른 암에 비해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이유이다. 폐암은 특성상 재발이나 전이도 잘 되며, 늦게 발견될수록 사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각 진료 과가 협진 해 환자를 조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시행해야 한다.

환자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다

– 6개 진료과 전문의 7명, 환자 중심 진료 시행

원광대학교병원 암센터의 폐암 다학제 진료는 호흡기내과 양세훈 교수를 중심으로 방사선종양학과 정유리·문성록 교수, 흉부외과 류대웅 교수, 핵의학과 김대웅 교수, 신경외과 김태영 교수, 병리과 최금하 교수를 주축으로 한다.
폐암 환자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원광대학교병원 폐암 드림팀이다.

다학제 통합진료란 암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여러 임상 과목의 전문의들이 한 공간에서 환자와 대면 진료하여 종합된 의견을 동시에 제공하는 진료를 말한다.

과거 환자, 보호자가 수일에 걸쳐 직접 여러 진료과의 외래를 방문해 의견을 듣던 병원 중심의 방식과는 달리, 다학제 진료는 분야별로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단부터 치료방향 설정(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추적관찰까지 당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철저한 '환자 중심'의 진료방법으로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전문 진료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여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다학제 진료로 최선의 선택을 도출하다

다학제 진료는 암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진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암 환자의 치료 성적을 크게 향상시킨다. 원광대학교병원은 2017년 3월부터 폐암환자에 대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12시 30분, 6개 진료과 7명의 교수가 모여 환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최선의 치료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환자에 대한 검토와 치료방법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환자와 보호자가 다학제 진료실에 들어와 진료를 본다.

호흡기내과에서 환자의 진단, 병기, 논의된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 각 진료과별로 필요한 추가설명을 한다. 진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은 환자, 보호자 누구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폐암 치료에서 다학제 진료는 폐암을 제대로 진단하고,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추후 더 많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다학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광대병원 폐암 다학제 진료팀'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탄탄한 팀워크로 환자별 맞춤 진료 제공

– 원광대병원 폐암 다학제 진료팀

호흡기내과 양세훈 교수는 폐암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방법을 논의하는 폐암 다학제 진료에 대하여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의 폐암 진료에 대한 열정에 감사한다고 전하고 있다.

양 교수는 "원광대학교병원 폐암 다학제 진료에서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각 분야의 암 치료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선의 치료방법을 논의한다.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된 호흡기내과·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 뿐만 아니라 핵의학과·신경외과·병리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진단 및 병기 설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각 분야의 전문의와 직접적이고 빠르게 상의할 수 있고, 재발하거나 전이가 된 폐암에서도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양한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치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호응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며, "원광대학교병원 폐암 다학제팀은 여러 진료과 간 소통이 활발하고, 팀워크도 좋다. 다학제 진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 수도권 대형병원 못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암환자의 경우 수도권 빅5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하다.
좀 더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만, 치료 후에도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소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의 신뢰를 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 이득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원광대병원 폐암다학제 진료팀

호흡기내과	양세훈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정유리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문성록 교수
흉부외과	류대웅 교수
핵의학과	김대응 교수
신경외과	김태영 교수
병리과	최금하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진은 “방사선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 주 동안 매일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 환자가 수도권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우리 원광대학교병원은 ‘바이탈빔’이라는 최첨단 방사선치료 기계를 갖추고 있고,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호흡연동방사선치료(RGRT, respiration gated radiation therapy), 정위체부방사선치료(SB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와 같은 고난이도, 특수 치료를 모두 구현할 수 있다. 특히,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만 집중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는 치료 기법인 정위체부방사선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조기폐암 환자나 소수 재발·전이암 환자에서 수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한 병기의 환자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전신상태, 기저질환, 병변의 위치 등에 따라, 최적의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폐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 여러 진료과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암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

환자 중심의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간에 신뢰를 형성해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원광대병원 다학제 팀은 다학제 진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심을 토대로,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영양상태의 향상을 위하여 열린 건강의학과 nutritional support team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적의 참여 및 신약개발에 대한 벤처회사의 참여 또한 유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